

#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

### 오는 30일까지 장흥 정착사례 수기 공모 접수 귀농·귀촌 희망자에 ‘정착 길라잡이’로 활용

장흥군이 'Long city 정남진 장흥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 정착 사례 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수기 공모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016년 이후 장흥으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기는 귀농·귀촌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 얹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면 된다. 정착을 결심하게 된 배경,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장흥이 가진

매력, 귀농·귀촌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을 극복한 사례 등 소재의 범위는 자유롭게 열려 있다. 다자녀, 다세대 가정의 행복한 가족사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직접 몸으로 체득한 생생한 이야기도 주제가 될 수 있다. 시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을 선정한 계획이다. 제출된 작품은 책자로 발간해 배부할 예정이다.

장흥군에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장흥 정착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결혼장려지원, 전입자 농산물지원,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 다자녀 가정 차량지원, 한마을 한가족 더갓기 운동, 장흥상가 우리군민 만들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Long city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 초여름 달콤한 선물 ‘강진 체리’ 맛보세요

### 강진군 체리 본격 출하...품평회 갖고 재배 정보 공유

강진산 체리의 본격 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강진체리연구회는 작전면에 있는 체리농장에서 지난 9일 첫 수확 품평회를 갖고 재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품평회에는 회원들이 재배한 품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식 평가가 진행됐다. 또한 여름철 전정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도 함께 추진됐다.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열대 과일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망과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체리 재배를 지원해 올해 14곳으로 재배 농가를 확대했으며 일부 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되고 있다.

유공관과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통합브랜드인 ‘강진품에’를 활용한 디자인 박스를 새롭게 만들어 고급 과일로 자리매김하고자 힘쓰고 있다. 현장에서 체리 재배농민들을 만난 이승욱 강진군수는 “우리 군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 체리의 맛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배농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판매나 직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부서에서는 토질에 따라 재배 난이도가 크게 차이는 특성을 감안해 배수가 잘되는 양질의 토양 선택을 권하고 난립해 있는 체리 묘목 시장에서 좋은 묘목을 선별하도록 교육하는 등 연 구회와 함께 강진산 체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외딴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격의 없는 대화로 도서민 애환 위로



완도군은 지난 8일부터 군외면 흑일도와 백일도를 시작으로 청산대모도, 소모도, 고금 뱃도 등 5개 외딴 섬을 찾아 현장소통 이동군

수실을 운영한다.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은 육지와 떨어져 소외되기 쉬운 완도군 외딴 섬 도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는 물론 건의사항 관련 현장과 안전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먼저 군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을 설명한 후 주민들과의 대화, 건의사항 현장 방문 순서로 진행됐다. 첫날 방문한 군외면 흑일도와 백일도에서는 ▲태풍 피항 선착장 설치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시파래 전시 ▲해상교통 편의를 위한 여객선 접안장 및 호안도로 개설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 등 거시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가로등 교체 ▲요양보호사 배치 ▲정자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여객선 선착장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즉시 처리 가능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처리토록 했다. 신우철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주민들에게 자주 찾아뵙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을 표하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수산물 소비 대책 및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며 군정을 펼치고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외딴 섬 현장 방문과 더불어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광업, 어업 및 농축산업 분야 이동군수실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전남형 긴급생활비’ 7,900가구에 25억 지급

### 적극 행정으로 151가구 구제...5명 복지인력 투입

진도군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25억을 7,900여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한 긴급생활비는 9일(화) 현재 심사를 통과한 가구가 대상이다.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11,300여가구로 군은 신청 가구의 98%인 11,100여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군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2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90% 상당인 25억 원을 집행했다.

특히 재산액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가구에 대해 일반 재산 중 토지 재산을 재조사 후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 151가구를 구제해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또 군은 고령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과 시급성을 반영, 방문 접수와 함께 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의 신속한 지급·적합심

사를 위해 주무과인 주민복지과 직원 5명과 읍면 복지 공무원 21명 등 총 26명을 조사 인력으로 투입했다. 실제로 7개 읍면에서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방문, 신청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방문 신청’을 실시했다. 진도군은 전라남도 긴급생계비와 연계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추가 연장 접수를 받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영암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농가신고제 운영

영암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과 의심증상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나무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농가의 주기적인 예방과 적기 의심증상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인은 과원 출입 시 작업자·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초기 병징 발견을 위한 자가 예찰 실시하고, 타 과원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군농업기술센터(470-660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